

# 독도·위안부 거론됐나... 민주 '한·일 회담 국조' 추진

### 박홍근 "대통령·외교라인, 굴욕외교 자화자찬... 신을사오적으로 불려" 강제 동원 셀프 배상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철폐 등 낱낱이 진상 규명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연일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경제·안보 등 국익 우선 논리를 앞세워 총력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론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깰집어내 역습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용산 총독이라고 깎아내리는 추태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 눈이 멀어 폭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 모습이 참 부끄럽다. 민주당, 그들에게는 영원한 반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마저 망각한 채 망언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이 신으로 모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최고 책임자인 일본 양을 '천황으로 부를 테니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매국 행위인가"라고 되물었다.

조혜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면 그런 일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나 매국노가 돼 버린다"면서 "(김 전 대통령) 아마도 지하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문자 반일, 다치고 반일, 무조건 반일 이걸

보면 통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등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가 거론됐다는 보도에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고,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면서 대어 비난 및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 외교를 추진 해놓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윤 대통령, 박 장관, 김 실장, 김 차장, 정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관계 확인도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독도는 영토 주권 문제,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해결 과제다. 후쿠시마 문제 역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냐"며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위 원내수석은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

가 일본 언론의 저열한 행태 때문이라면, 대통령실은 더더욱 논의된 내용을 공개해 사실이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예금자 보호 1억·주 4.5일제 추진"

### 국회 기자간담회... 양곡관리법·방송법·안전운임제 신속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예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컨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금 전제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 이재명,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독도의 날을 만들고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의도 브리핑

### 학폭 피해학생 법률 지원해 '정순신 방지'

#### 서동용 의원,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2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2023 고소득추천 목록

<b>두릅</b>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b>포도</b>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b>감</b>		감풍, 원주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종에 최고! 대봉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b>엄나무</b>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b>호두</b>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까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누는 "갹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든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갹을농원

모욕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882동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01 (예규주·정종화)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